

마셜과 새뮤얼슨·맨큐 등*

변 형 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1차 경제학원로석학과의 대화의 연사로 나선 변형윤 교수께서는 근대경제학의 원조로 추앙 받는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이 지녔던 경제학 내지는 경제학도에 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변형윤 교수는 마셜이 지녔던 두 가지 관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경제학은 의제된 추상적인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피와 살을 지닌 살아있는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며 둘째, 경제학도는 모름지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변형윤 교수는 마셜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경제학도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학자의 전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고전학과종합을 이룸으로써 미국 경제학계를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폴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이 죽는 날까지 피와 살을 지닌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의제되고 추상적인 경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커다란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새뮤얼슨이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와 공동으로 집필한 경제학 제18판(2005)부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서의 경제학자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한편 경제원론의 저자로서 새뮤얼슨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레고리 맨큐(Gregory N. Mankiw)에 관해서는 그가 처음부터 피와 살을 지닌 진짜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셜의 정신에 가깝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맨큐가 아직 연부역강한 학자라는 점을 들어서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냉

* 편집자 주: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경제학원로석학과의 대화」의 요지에 해당한다. 제1차 대화는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이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변형윤 교수를 모신 가운데 2015년 5월 20일(수)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아래에서 이탤릭체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마샬의 관점에 공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을 피력하기도 한다.

1. 마샬

Alfred Marshall(1842~1924),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 신고전학과 내지 케임브리지학파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그의 3대 主著는 『經濟學原理』(1890; 1920), 『産業과 貿易』(1919), 『貨幣, 信用 및 商業』(1923)이다. 그러나 主著 중의 主著는 『經濟學原理』이다.

마샬은 이 主著에서 經濟學과 人間을 定義하고 있다.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人間에 關한 研究이다... 그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行 動 중 福祉의 본질적 요건의 획득과 그 사용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經濟學은 일면에 있어서는 富의 研究이지만 다른 보다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人間 研究의 일부이다(p. 1).

人間生活의 一側面을 다루지만 그	이 모든 研究에 있어서 經濟學者는 人間을 있는 그대로
것은 擬制된 인간의 것이 아니고	로의 모습으로 抽象적인 인간 내지 「經濟人」으로서가
現實의 인간의 생활에 관한 것이다.	아니고 피와 살을 가진 人間으로서 다룬다...(p. 22).

그리고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1885년 敎授 취임 강연 ‘經濟學의 現狀’ 끝 구절에서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을 배우는 學生들의 姿勢를 밝히고 있다.

強한 人間の 위대한 어머니인 케임브리지가 세계로 배출하는 자는 冷徹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cool head but warm heart)을 갖고서 자기 주위의 사회적 고뇌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힘 중 적어도 얼마를 바치고자 하며, 또 교양 있는 고상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능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이들을 더욱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부족한 재능과 한정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나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염원이며 또 최고의 노력이다(A. C. 피구 편, 알프레드 마샬의 追憶, 1925, p. 174; 線은 본인이 그른 것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마샬은 경제학은 보다 重要한 측면에서는 人間研究의 一部라는 것, 人間은 抽象적인 人間 내지 「經濟人」이 아니고 피와 살을 가진 人間이라는 것,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者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2. 새뮤엘슨·만큐

1) 새뮤엘슨

Paul A. Samuelson(1915~2009), MIT 유니버시티 敎授, 美國 最初の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이다. 그의 3大 主著는 『經濟分析의 基礎』(1947), 『經濟學』(1948; 2008), 『리니어 프로그래밍과 經濟分析』(R. 도프만, R. M. 솔로우와의 共著, 1958)이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經濟學』(1948; 2008)이다. 이 『經濟學』은 1948년에 初版이 나왔고 그 뒤 제3판(1955), 제5판(1961) 등의 改訂版이 나왔는데 제11판(1980)까지는 單獨으로 그리고 제12판(1985)부터 그의 死亡直前の 제19판(2008)까지는 예일대 석좌敎수인 N. D. Nordhaus와 共同으로 出版했다.

새뮤엘슨은 『經濟學』에서 케인즈理論과 新古典派理論의 綜合을 試圖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巨視적 所得分析和 微視적 價格分析을 新古典學派의 흐름에 따라서 綜合하려고 한 이른바 <新古典派적 綜合>을 試圖했다. 그의 이 試圖은 그 이후 主流經濟學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새뮤엘슨은 第5版(1961)의 序文에서 <新古典派적 綜合>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되풀이해서 冊을 통해서 나는 내가 ‘大新古典派 綜合’이라고 부르는 것을 記述했다. 이것은 新古典派적 所得決定論의 妥當한 核心과 古典派적 經濟原理의 綜合이다. 基本的 敎義는 이것이다. 所得分析手段에 의하여 通貨 및 財政政策의 매우 重要的 問題를 푸는 것은 正當하며 新古典派적 眞實을 適切化하는 것이다(第5版(1961) 序文 vii).

2) 만큐

Gregory N. Mankiw(1958~), 하버드대 敎수. 그의 主著는 『經濟學原論』(1999; 2009[5판])이다. 그는 이 著書의 ‘序文: 學生에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人間에 관한 研究이다.’ 19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經濟學原理』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샬이 살던 시대 이래로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지만 그가 내린 경제학의 정의는 『經濟學原理』 교과서 초판이 출판된 1890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13부 중 제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의 3개 章(제18, 19, 20장)을 소득분배문제에 할애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장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다.

3. 3인의 比較

앞의 1과 2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샬은 경제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人間에 관한 研究

라는 것, 經濟學을 배우는 사람은 冷徹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뮤얼슨은 前者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고 있고, 後者에 대해서는 노드하우스와의 共著인 제18판(2005) 16면에서 비로소 討論을 위한 質問 첫머리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맨큐는 『經濟學原論』(초판 1999; 제5판2008)의 첫머리 學生에 대한 序文에서 前者를 다루고 있지만 後者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고 있다.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提示한 것이다.

<표>

	마살	새뮤얼슨	맨큐
ㄱ	○	×	○
ㄴ	○	(제18판, 2005부터) ○	×

주 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人間에 관한 研究.
 ㄴ: 經濟學을 배우는 사람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 分配의 不平等 문제 등이 심각함을 감안할 때 마살의 ‘經濟學은 人間研究의 일부’라는 정의에 關心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살이 말하는 인간은 「經濟人」, 허구적인 인간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는 人間이기 때문이다.

맨큐는 ‘인간연구의 일부’라는 마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맨큐에 대해서 큰 關心을 갖고 있다. 그가 앞으로 그의 『經濟學原論』을 어떻게 展開할지 궁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큰 成果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銳意注視하고자 한다.

4. 기타

此際에 덧붙여서 한국 經濟의 과제에 대해서 아주 簡略하게 言及하면 다음과 같다.

(ㄱ) 成長과 福祉의 兩立 추구

(ㄴ) 번듯한 일자리 창출에 注力

(ㄷ) 包括적 成長의 추구

包容적 成長은 中國의 후진타오도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안쓰고 윈어 inclusive를 살려서 이렇게 포괄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中小企業의 成長, 社會安定網의 強化・擴充, 女性雇傭의 增大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ㄹ) 經濟民主化의 推進

이것은 巡環出資 禁止, 產金分離 등을 核心 內容으로 한다.

(ㅁ) 家計負債 管理에 注力

家計負債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